‘한판승의 소녀’ 이현지 고등부도 접수

2023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 +78㎏급 우승
준결승전서 고교 1위 이혜빈 제압 최강자리 교체
김세림·고지운·고미소 첫 대회서 나란히 동 획득

왼쪽부터 고지운, 이현지, 고미소, 김세림.

‘한판승의 소녀’ 이현지(남녕고 1)가 드디어 고등부 무대도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현지는 15일 전남 순천시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3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2023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및 꿈나무선수 평가전 겸) 여고부 +78㎏급 결승전에서 김하영(경남체고)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현지는 김하영을 상대로 허리후리치기에 이은 누르기 한판승으로 우승하며 화끈한 고등부 입성 신고식을 했다.

신입생인 이현지는 이날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 모두 부전승으로 손쉽게 준결승전에 나섰다. 준결승전 상대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 첫 패배를 안겼던 이혜빈(경민고 3)이었다. 이혜빈은 이현지가 없는 고등부에서 천하무적으로 군림했다. 지난해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선 이 체급과 무제한급을 동시에 석권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현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현지는 자신의 주특기인 허리후리기로 한판승을 거뒀다. 이현지는 지난해 4월 열린 제26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이혜빈을 한판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된 경기였다.

이현지의 선배들인 김세림(3)과 고지운(2), 고미소(2)는 나란히 동메달을 따내며 올해도 정상권에서 활약을 예고했다.

남고부 중량급인 -90㎏급의 김세림은 박은호(삼천포중앙고)와 차동우(경민고), 윤경일(계성고), 현정우(청석고)를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 김세림은 최재민(보성고)에게 석패하며 정상등극을 다음 대회로 미뤘다.

지난해 대회에서 -66㎏급으로 출전했던 고지운은 이 대회에서 한 체급을 올려 -73㎏급으로 나서 승승장구했지만 준결승전에서 장성훈(우석고)에게 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 체급은 99명이 출전하며 최다 참가 체급이었다. 8강전까지 비교적 수월한 경기를 치른 고지운은 8강전에서 김윤영(경북휴먼테크고)에 절반을 빼앗겼지만 허벅다리 걸기 한판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여고부 -63㎏급의 고미소는 준결승전에서 배희진(충북체고)의 벽에 막히며 동메달리스트가 됐다. 고미소의 준결승전 상대 배희진은 지난해 양구평화컵과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호. 예상대로 둘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결국 고미소는 지도패를 당하며 결승전 진출기회를 놓쳤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2026 북중미 월드컵서도 ‘4팀 한 조’

FIFA, 조별리그 운영방안 만장일치 승인
“담합 위험 줄이고 스포츠 매력 등도 감안”

첫 ‘48개국 월드컵’을 맞아 세 팀을 한 조로 묶는 새로운 조별리그 방식을 꺼내려던 국제축구연맹(FIFA)이 네 팀을 한 조로 묶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FIFA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제73회 르완다 총회에 앞서 열린 평의회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4팀씩 12조로 묶어 조별리그를 치르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FIFA는 “스포츠의 순수성·매력, 선수 복지, 팀들 간 이동, 상업성, 팬 등 여러요소를 철저히 검토한 끝에 세 팀씩 16개조가 아닌 네 팀씩 12개조로 2026 월드컵 조별리그를 운영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1, 2위인 24개팀이 32강에 직행하고, 나머지 8자리를 놓고 조 3위 팀들이 다툰다”며 “이 방식은 (팀끼리) 담합 위험을 최소화하고 모든 팀이 최소 3경기를 뛰도록 보장하면서 휴식 기간도 고르게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년 뒤 북중미 월드컵은 본선에 48개국이 출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출전국 수가 늘면서 네 팀씩 한 조로 묶어 각 조 1, 2위를 16강 토너먼트로 올려보내는 기존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이 때문에 오랜 기간 ‘대체 방안’이 논의됐다.

당초 FIFA는 세 팀씩 16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르고 조 1, 2위가 32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이어가는 방식을 택하려 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80경기만 치러 우승국을 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팀당 조별리그 경기 수가 2경기에 그치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더불어 조별리그 최종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나중에 2차전을 치르는 2개 나라가 담합해 비기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도 제기 됐다.

조별리그 최종전에 앞서 일찌감치 32강에 나설 1, 2위 팀이 결정되면 경기의 긴장감이 떨어질 공산도 크다.

기존 ‘4팀 한 조’의 최고 장점으로 꼽힌 ‘막판 긴장감’을 누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FIFA도 재검토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골프공 317야드 이상 못 날아가게 한다”

R&A·미국골프협회 “골프공 성능 제한” 성명

앞으로 프로 골프 대회에서 350야드(320.04m) 이상 날아가는 초장타를 치는 선수는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세계 골프 규칙을 관장하는 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마침내 늘어나는 비거리를 억제하기 위한 결정타를 빼 들었기 때문이다.

R&A와 USGA는 15일(한국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프로 대회에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골프공 성능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A와 USGA는 골프공을 시속 127마일(약 204.4㎞)의 스윙 스피드로 때렸을 때 비거리가 317야드 이상 날아가지 않도록 3년 안에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프로 선수들이 대회에 들고나오는 골프공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R&A와 USGA의 계획대로 골프공 성능이 제한되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상급선수들의 드라이버 티샷 거리는 약 15야드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규정은 골프를 취미로 즐기는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골프 볼 성능 제한은 그동안 늘어나기만 하는 비거리 때문에 골프의 본질이 훼손되고, 골프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R&A와 USGA의 오랜 우려 때문에 나왔다. 연합뉴스

올 시즌 개막전 최다 관중 제주Utd

“이번엔 설렘 가득한 봄 소풍 어떤가요?”

18일 FC서울전 어린이-커플-가족 이벤트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오는 18일 FC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팬들과 함께 봄소풍에 나선다.

제주는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FC서울과의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봄맞이 소풍과 나들이를 주요 테마로 또 다시 팬들의 많은 발걸음을 기다린다.

제주는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FC와의 홈 개막전에서 유료 관중 집계를 시작한 2018시즌 이후 최다 관중인 8362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FC서울과의 경기에서 펼쳐지는 이벤트는 홈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어린이와 가족 단위 팬층을 위해 다양한 놀이기구와 어트랙션을 준비했다. 놀이동산 ZONE(E석 광장)에서 유로번지, 어린이 꼬마기차가 운영되고, 스포츠체험 ZONE(외부광장)에서는 캐논슈터 선발대회, 핸드드러머, 행운의 스톱워치가 진행된다. 응원 FREE ZONE에서는 응원 판박이 제공, 나만의 응원크래퍼 만들기, 선수들에게 남겨라! 응원 댓글 등 다양한 체험형 응원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조상윤기자

도민체육대회 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송승천)는 15일부터 16일까지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도민체육대회 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가신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체육회는 제57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한 달여 남겨 놓은 가운데 행정시체육회와 도내 43개 읍·면·동, 초·중·고교와 회원종목단체, 도장애인체육회 등 관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기능 및 변경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다.

대회 참가신청은 도민체전 관리시스템 (http://www.jejusportsf.kr)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등록하고 4월 3일 오후 6시 마감한다.

조상윤기자

16(목)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8:05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마녀의 게임(재) 8:30 TV 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1:1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45 헬로키즈 체육교실(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8:00 딩동댕 유치원 9:35 타타와 쿠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45 한국의 둘레길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16:25 한글용사 아이야 17:30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8: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9:00 순간 포착, 야생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30 방과 후 초능력 15:00 상상꾸러기 꾸다 2 15:15 좀비덤 3 15:30 매직펜던트 대모험 15:45 프라몬 원정대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30 홍김동전(재) 13:50 스튜디오 K(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두리둥실 뭉게공항 3(재)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누가 잘하나 17:00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17:15 꼬마공룡 크앙 17: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5 꼭두의 계절(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실화탐사대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50 수학 없는 수학여행(재) 14:00 전국 TOP10 가요쇼(재) 15:00 최강 1교시 16: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뉴스 17:50 접속! 무비월드	**KCTV** 7:00 KCTV 뉴스 8:30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당선자에게 듣는다 9:30 아간개장 10:30 탐라의 벵에, 귀리 14:30 프로젝트 제주ING 16:10 KCTV 다큐스페셜 17:00 KCTV 뉴스 18:30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에게 듣는다 19:00 KCTV 뉴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내 눈에 콩깍지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공영방송 50주년 대기획 히든 어스 한반도 30억 년 22:50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여자 20:30 홍김동전 21:50 연모 23:00 연중 플러스	18:05 테마기행 길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마녀의 게임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공감토크 소통의 고수 22:00 놀면 뭐하니? 스페셜 23:30 2023 WBC 특집 다큐 숙적 2부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뉴스 21:00 수학 없는 수학여행 22: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제주CBS FM 93.3㎒ 90.9㎒**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4:05 송정미의 축복송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부 **TBN제주교통 FM 105.5㎒ 105.9㎒**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0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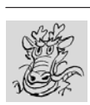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토록 노력하라. 48년 아랫사람과 의견 조율이 곧 나의 명예와 직결된다. 60년 잘 알지 못하면 참견하는 것은 삼가라. 망신수와 구설이 따른다. 72년 일이 풀리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면 좌불안석하게 된다. 84년 마음이 안정되고 의욕이 증가한다.

37년 자식의 문제로 마음이 쓰이나 스스로 해결되니 크게 우려하지 마라. 49년 관청 승인이나 인허가건이 해결되거나 계약할 일이 발생. 61년 활동력이 늘어나고 자식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있다. 73년 친구의 선약이 깨지거나 관계가 서먹해진다. 85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오나 반갑지 않다. 구설수 따른다.

38년 사업에는 수익이 있고 몸이 바빠진다. 50년 부하직원과 공유하고 해결이 안되는 것은 맡기면 해결된다. 62년 어려움이 친구나 동업자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74년 재정적 지출로 갈등한다. 다툼은 화를 자초하며 내게 불리하다. 86년 유흥 낭비하는데 지출이 생기고 외모에 신경 쓸 일이 생긴다.

39년 가정사 문제로 형제 간에 논쟁이 생기니 나서지 말고 중립을 지켜라. 51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 63년 친구 또는 대인관계의 폭이 넓으면 좋다. 75년 교육·예능분야 운이 원만해지고 뜻하는 일이 해결된다. 87년 새로운 교제나 이성간 다툼이 오니 오늘보다 내일 만나라.


40년 의욕이 강하고 갈 곳이 많다. 활동 원만. 52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 또는 미래설계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64년 시험 자격 준비자에게는 진전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 76년 자녀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88년 상사나 지인의 추천 도움이 있거나 금전운이 좋아진다.

41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로 인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득도 따른다. 53년 금속류, 주유업은 분주하며 이익이 있다. 65년 직장이나 지연되던 업무가 해결되고 일의 능률이 있다. 77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주변인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89년 사고력이 증가하고 이해득실을 생각한다.

42년 의기투합하고 협력할 일이 생기면 이익이 있다. 공동투자 창업도 있다. 54년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즐겁게 비워라. 66년 참고 기다리던 일에 기쁜 소식이 있다. 78년 친구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좋으나 자금이 지출되고 용돈은 궁하다. 90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함이 가중된다.

43년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 외출을 하거나 모임에 참석한다. 55년 문서관련 재물운이 있으니 잘살펴서 활동을 하라. 67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활동성 있는 업은 이익이 증가된다. 79년 취업이나 직장문제에 희소식이 있다. 미혼자 이성교제 길. 91년 기득권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경합한다.

44년 구설수로 모임이나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 56년 계약 매매 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68년 경쟁자 또는 상대자로 인해 피곤. 전문직은 일이 많아진다. 80년 부부간에 불화 갈등이 있고 이성간엔 교제가 진행될 수도 있다. 92년 과음을 삼가고 운전 또는 밤길 조심하라.

45년 자기의사를 명쾌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용기. 57년 매매나 문서 계약건이 성사가 되나 자금력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69년 동료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이성교제 소식이 찾아온다. 81년 지인의 도움이나 추천으로 취직이나 직업이 생긴다. 93년 의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니 마음껏 활동하라.

46년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면 이익이 된다. 58년 신규창업에 좋고 기존 사업자는 매출이 증가된다. 70년 전문업에서는 인정을 받으나 재물은 손실이 따른다. 82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론 허전함이 몰려오니 기대를 크게 하지 마라. 94년 불화나 논쟁이 올 수 있으니 먼저 시비는 금물.

47년 아랫사람과 관련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59년 과욕은 금물, 무리한 투자는 하지마라. 손실이 있다. 71년 내기 투기 도박에 승부를 걸면 손해가 심하니 자제하는게 유리. 83년 계획한 일에 차질이 오니 다음으로 미뤄라. 95년 모임이나 만남이 있다. 외출시 음주 자제. 늦은 귀가는 금지.